

만남

2017 6월
통권 149호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주임신부님 : 박 철 현 미카엘

Katholische Koreanische Mission in Hamburg

<http://mannam.cathms.kr>

| | | |
|---------------------------|---------------|----|
| 신부님 칼럼 | + 나의 성심 성월 | 3 |
| 소공동체 모임 자료 | 하느님 안에 평화 | 4 |
| 교리 | 신앙의 재발견 1~3 | 8 |
| 기도 소개 | 예수 성심께 드리는 기도 | 11 |
| 영적 상담 | _____ | 13 |
| 나눔 | _____ | 14 |
| 공동체 소식 | _____ | 16 |
| 지방 공동체 소식 | _____ | 20 |
| 활동단체 모임 및 연락처 | _____ | 21 |
| 이 달의 전례 및 행사 | _____ | 22 |
| 함부르크 한인천주교회, 월보 만남지 안내 | _____ | 23 |
| 미사안내 | _____ | 24 |



《교황님의 6월 기도지향》

❖ 일반 : 국가 지도자들

국가 지도자들이 수많은 무고한 희생자를 낳는 무기 거래를 종식시키는 데에 흔들림 없이 힘쓰도록 기도합니다.

나의 성심 성월

6월은 예수 성심 성월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을 특별히 찬미하는 달입니다. 그런데 6월에 있는 예수 성심 대축일은 사제 성화의 날이기도 합니다. 사제 성화, 한 마디로 사제는 거룩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품격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은 하느님의 뜻을 제대로 실천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열심히 살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도 없을 것입니다. 성화라는 말 그대로, 사제는 사제로서 살기 이전에 스스로 거룩한 봉헌의 삶을 먼저 살 수 있어야 하겠지요.

사제 성화의 날에는 신부님들끼리 모여서 강의를 듣기도 하고, 아니면 성지 순례를 가기도 합니다. 아실지 모르지만, 사실 신부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를 제일 힘들고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강의를 듣는 태도가 조금 산만하기 때문입니다. 강의를 하는 분들은 이미 그 정도쯤은 자신도 알고 있다는 눈길을 보내는 신부님들의 태도에 순간 당황합니다. 그러다 보면, 처음에는 신념으로 가득 찬 강의를 주눅이 든 모습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어쩌면 신부님들의 자존심이 너무 높은 탓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강의를 듣는 일보다 오히려 강론을 하는 일에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찌 되었건, 이처럼 쉽지 않은 강의를 신부님들은 사제 성화의 날만큼은 열심히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이날만큼은 자신들을 낮추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믿어주실 지는 모르지만 저는 그래도 강의 때 열심히 듣는 신부였습니다. 가끔씩은 머리가 너무 무거워지곤 하지만 가능하면 귀 담아 듣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런 노력이 저를 하느님께로 가까이 이끌어 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떻습니까? 꼭 자신의 성화가 아니더라도 하느님을 따르고, 그분 안에서 평화를 찾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요?

하느님 안에 평화(시편 62,2-3.9-13)

◆ 지난달에 정한 성구에 대한 생활 나눔을 잠시 하겠습니다.

시작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44장 “평화를 주옵소서”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합니다)

주님 초대하기

진행자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 주님! 저희가 영원한 참 평화를 얻게 해주소서!
- 참 평화이신 주님! 주님을 굳게 믿사오니, 저희가 주님께 더욱 나아가게 하소서.

하느님 말씀

진행자 한 분이 시편 62장 2절에서 3절, 그리고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62, 2 내 영혼은 오직 하느님을 향해 말없이 기다리니
그분에게서 나의 구원이 오기 때문이네.

3 그분만이 내 바위, 내 구원, 내 성채.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으리라.

9 백성아, 늘 그분을 신뢰하여라
그분 앞에 너희 마음 쏟아 놓아라.
하느님께서 우리의 피신처이시다.

10 진정 사람이란 숨결일 따름
인간이란 거짓일 따름.
그들을 모두 저울판 위에 올려놓아도
숨결보다 가볍다.



- 11 너희는 강압에 의지하지 말고
강탈에 헛된 희망 두지 마라.
재산이 는다 하여 거기에 마음 두지 마라.
- 12 하느님께서 한 번 말씀하신 바
내가 들은 것은 이 두 가지.
능력이 하느님께 있다는 것.
- 13 그리고 주님, 당신께서는 자애가 있습니다.
당신께서는 각자에게
그 행실대로 갚으십니다.

진행자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 주십시오.

진행자 성경 구절이나 단어를 3번씩 기도하듯이 외쳐주십시오.

진행자 마지막으로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읽어주십시오.

진행자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각자 마음 안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진행자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특별히 마음에 다가오는 말씀이 없을 때는 아래의 질문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하느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음에 의심을 품은 적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또한, 하느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된 후, 하느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느껴본 적이 있다면, 각자 나누어 봅시다.

한걸음 더 나아가기

진행자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또는 어느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 하느님의 현존방법(5가지)

1. 성체성사 안에 현존하시는 하느님

- 우리가 미사 때 성체를 모실 때 우리는 하느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2. 말씀 안에 현존하시는 하느님

- 우리는 성경말씀을 읽어내려 갈 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느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3. 상호간의 사랑 안에 현존하시는 하느님

- 나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사랑을 나눌 때 그 속에서 하느님께 서는 함께 하고 계시며, 마음의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4.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할 때 현존하시는 하느님

- 나를 사랑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나와 함께 해 주시고, 내 안에 머물러 계시는 하느님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5. 교계제도 안에 현존하시는 하느님

- 우리는 교회의 가르침을 따르는 데, 소홀히 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가르침은 하느님 당신께서 가장 쉽게 당신을 드러낼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교회의 가르침 안에서 하느님께서서는 당신을 드러내십니다.

끼아라 루빅

생명의 말씀 정하기

진행자 한 달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어떤 성구말씀이 좋겠습니까?

기타토의

진행자 지난달 우리 공동체가 결정한 실천사항을 어떻게 했는지 함께 나눠봅시다.

(나눔 후) 이제 이번 달의 우리 소공동체가 실천할 사항들을 함께 논의해 봅시다.

(실천사항 논의 후)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침기도

진행자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마침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44장 “평화를 주옵소서” 2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합니다)



1. 도대체, 신앙이 무엇이란 말인가?

“신앙이란 우리의 이성으로는 알 수 없는 진리를, 증언에 기반하여 그저 본능적으로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 복자 존 헨리 뉴먼 추기경

‘신앙(信仰)’이라는 말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믿고 받드는 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저 단순히 믿기만 하는 마음인 ‘믿음’과는 다른 것입니다. 다시 말해 믿음을 갖기는 쉬우나 ‘신앙’을 갖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하느님을 굳게 믿고 하느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라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하느님을 ‘믿는 사람’은 많아도 하느님을 ‘신앙하는 사람’은 적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신앙’해야 합니다.

가톨릭 청년교리서 <유캣(You Cat)>은 신앙의 특징을 일곱 가지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순전히 하느님의 전적인 선물이며 우리가 진심으로 그것을 청할 때 얻게 됩니다. 신앙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초자연적인 능력입니다. 인간이 하느님의 초대에 응할 때, 신앙에는 인간의 자유의지와 명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신앙을 보증하시기 때문에 신앙은 전적으로 확신할 만합니다. 신앙이 사랑으로 증명되지 않는다면 그 신앙은 불완전합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을 더욱 주의 깊게 경청하고 기도를 통해 그분과 살아있는 관계에 머문다면 신앙은 성장합니다. 신앙은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기쁨을 맛보여 줍니다.

신앙은 알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신뢰는 바로 하느님과 ‘사랑의 관계’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하느님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느님을 모르면서 하느님을 사랑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미사 때마다 사도신경을 통해 신앙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고백이 말로만 하는 습관적인 외움이 되지 않고 진정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그동안 잊고 지내던 가톨릭 신자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교리지식과 교회의 가르침을 재습득해야 할 것입니다.

2. 하느님이 어디 계시노?

사람들은 흔히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며 하느님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더군다나 믿음을 가졌다는 소위 ‘신앙인’이라는 사람들마저도 절망적인 일을 당하거나 여러 가지 사회악을 경험하게 되면 정말로 하느님이 계시냐며 의심을 품기도 합니다.

“백문이 불여일견(百聞不如一見)”이라는 말도 있듯이 2000년이나 지난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하고, 보이지 않는 하느님이 실제로 계시음을 믿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느님께서 계시음을 확실히 인식하지 못한다면 참된 그리스도교 신앙을 가질 수도 없고, 설사 신앙을 가졌다 해도 그것은 기복 신앙이 될 위험이 크고 뿌리가 약해 유혹이 닥쳐오면 쉽게 무너집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하느님께서 계시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러기 위해선 우주의 존재와 질서정연한 법칙, 사람을 포함한 모든 생물의 탄생과 성장, 양심이라는 불문율과 스스로의 존엄성, 나의 정체성과 이 모든 존재의 이유 등 이러한 의문들에 대한 명쾌하고 합리적인 답이 있는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흔히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빅뱅’이나 ‘진화론’ 같은 과학이론을 진리인양 의심 없이 받아들여 오류를 범하게 되는데 자연현상이든 인간의 탄생이든 또한 우주의 신비든 어느 것 하나도 아무런 목적과 계획 없이 저절로 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월보를 만든 사람은 볼 수 없어도, 지금 내가 월보를 볼 수 있고 만져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월보를 만든 편집자가 반드시 있음을 알 수 있듯이 우리는 내 눈으로 보고 느낄 수 있는 신비스러운 나 자신을 포함한 우주 만물을 보고 또한 그 속에서 신비로움과 경이로움을 체험함으로써 그것을 만드신 하느님의 존재하심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작품들에게 영원한 질서를 주시고 제 영역을 세세대대로 정해 놓으셨다. 그리하여 그들은 굶주리거나 지치지 않고 제구실을 그만두지도 않는다.”(집회 16,27)

3. 사도들을 통해 맡겨진 신앙의 유산, 성경과 성전

하느님의 모습으로 창조된 인간은 타고난 능력으로 하느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느님께서 어떠한 분이시고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오류 없이 확실하게 알려면 하느님께서 직접 알려주셔야만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느님께서 당신 자신과 당신의 사랑을 직접 가르쳐 주시는 것이 바로 ‘계시(啓示)’입니다. 가톨릭은 인간이 스스로 진리를 터득해서 세운 종교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직접 당신을 드러내시고 구원의 진리를 가르쳐 주심으로 이루어진 계시종교입니다. 바로 그 계시의 원천이자 신앙의 유산이라 할 수 있는 것이 성경과 성전입니다.

‘성경’은 성령의 영감을 받아 기록된 하느님의 말씀이며, ‘성전’은 성경에 기록된 것 외에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사도들에게 맡기신 하느님의 말씀으로 교회의 살아있는 전승 안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을 따라 다니면서 그분의 가르침과 행적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순교하자 사도들의 기억과 체험을 문서로 작성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생겨났는데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신약성경입니다. 그렇지만 사도들의 기억과 체험이 전부 성경으로 기록될 수는 없었습니다. 더 많은 내용들이 구전으로 사도들의 후계자에게 전해져 강론이나 교리의 형태로 기록되었는데 이런 내용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성전을 보다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해 사도들로부터 내려온 신앙의 핵심 진리를 담고 있는 거룩한 전통인 성전은 ‘사도전승’이라 하고, 시대적 흐름에 따라 지역 교회에서 생겨난 신학적, 전례적 또는 신심에 관한 전통은 ‘교회전승’이라고 부릅니다.

성경만으로는 교회가 모든 계시 진리에 대한 확실성에 이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계시 진리의 두 원천인 성경과 성전을 똑같은 열성과 경외심으로 받아들이고 존중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 성심께 드리는 기도 / 성녀 마르가리타 마리아 알라콕

지극히 거룩하신 예수성심이여,
 저의 생명, 생각과 말과 행위,
 그리고 아픔과 고통을 당신께 봉헌하오니
 제 존재의 지극히 보잘 것 없는 것조차
 당신께 영광 드리고,
 당신을 사랑하고 섬기는데
 남김없이 쓰이게 하소서.

오, 지극히 성스러운 예수성심이여,
 제 사랑의 단 한 분뿐인 임이시여,
 제 생명의 보호자시며 제 구원의 약속이시여,
 제 죽음의 순간, 저의 피난처 되어주소서.

지극히 아름다운 성심이여,
 하느님의 옥좌 앞에 저를 의롭게 하시고
 제가 마땅히 받아야 할
 그분의 분노로부터 저를 지켜주소서.

저의 모든 신뢰를 당신께 두오며
 저의 나약함을 당신께 의탁하오며
 오로지 당신의 관대하심에 저를 맡기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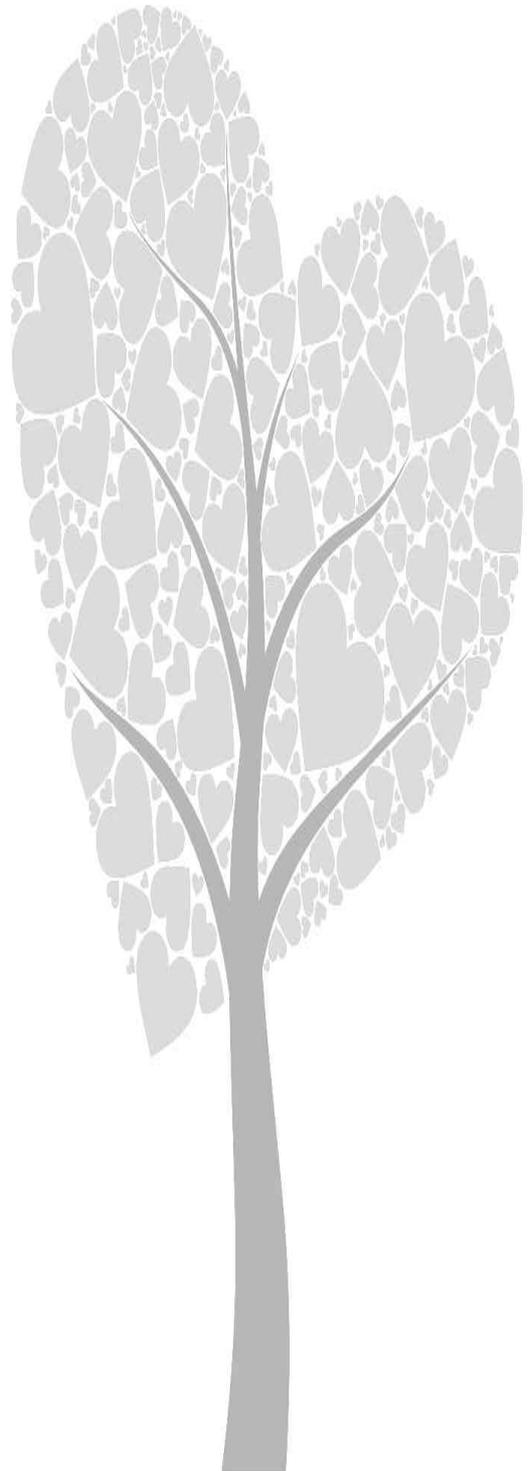
당신의 지고하신 눈에 어긋난 모든 것들을
 저에게서 없애주시고,
 제 심장에 당신의 신성한 낙인을 찍어주시어
 제가 결코 당신 곁을 떠날 수 없음을 잊지 않게 하소서.



간절히 청하오니,
당신의 관대하신 은총으로
제 이름 또한 생명의 책인 당신 마음에 새겨주소서.

저로 하여금 당신 영광을 위해 봉헌된
산 제물 되게 하시고,
지고지순하신 당신 사랑의 불꽃으로
저를 불살라주시며,
영원토록 저의 전 존재를 꺾뚫어 주소서.

이에 저의 모든 행복을 둘 것이고,
이것이 저의 온 원의가 될 것이며,
저의 살고 죽는 모든 것이
오로지 당신께
봉헌된 종이 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아멘.



삶과 스트레스(손진욱 요셉)

우리가 살면서 스트레스를 피할 수는 없다. 그리고 스트레스가 다 나쁜 것만도 아니다. 스트레스가 오히려 새로운 도전의 계기가 되고, 삶에 활력을 주며, 긴장을 적절히 유지해 주는 유익한 역할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스트레스가 너무 크거나 오래 지속되는 경우에는 큰 문제가 된다. 과도한 스트레스는 그 자체로 괴로울 뿐만 아니라, 각종 정신질환은 물론 고혈압, 심장병, 위궤양 등 수많은 신체질환의 발생과 악화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우선, 불필요한 스트레스 발생을 줄여야 한다. 적절한 생활의 안배와 일의 우선순위 및 완급조정이 필요하다. 골치 아픈 일은 미루지 말고 그때그때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 우(愚)를 범하지 않게 될 것이다. 또 지나친 기대는 금물이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이다.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사고와 여유 있는 마음가짐도 필요하다. 차선책에 만족할 줄 알고,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한 발짝 물러서서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를 생각해 보는 것이 좋다.

둘째, 닥쳐온 스트레스는 가급적 빨리 해소시켜야 한다. 먼저 진솔한 감정 표현이 중요한데, 부정적인 감정들을 표출시키지 않고 마음에 쌓아두면 이것이 화(火)와 한(恨)이 되어 나중에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화가 필요하다. 가까운 사람과의 흥금을 털어놓는 대화나 수다, 혼자 하는 낚두리나 하소연, 기도를 통한 하느님과의 대화 등 모든 형태의 대화가 스트레스 해소에 큰 도움이 된다. 음악 감상, 노래 부르기, 산책, 등산, 여행, 간단한 술 한 잔 등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 더 나아가 마음 속 갈등을 스포츠, 예술·문화 활동, 선행 등을 통하여 승화시킨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이다.

셋째, 신앙생활이 큰 도움이 된다. 믿음을 통하여 얻게 되는 삶의 가치와 목적, 정서적 지지, 사랑과 자비에 바탕을 둔 삶 등은 모두 튼튼한 스트레스 방어막이 되어준다.

넷째, 이완요법이 도움이 된다. 심호흡, 근육이완법, 명상 등은 스트레스 반응이 각종 신체질환으로 진행되는 것을 막아준다. 이에 대한 자세한 시행방법은 인터넷에 잘 나와 있다.

마지막으로, 혼자서 감당하기 어렵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서슴지 말고 주위의 심리전문가들, 특히 사목 상담자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간절한 기도(강석진 신부님 - 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사제 및 부제서품을 앞둔 어느 수도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일주일 동안의 서품 피정을 마친 다음 피정 지도 신부님과 자유롭게 담소를 나눌 때였습니다. 그때 피정을 지도 신부님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수사님들에게 좋은 정보 하나 알려드릴게요. 서품식 때 성인호칭기도를 하는 동안 가장 낮은 자의 모습, 가장 겸손한 자로 살아가겠다는 뜻으로 제단 앞에 완전히 엎드리잖아요! 그때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대요. 그러니 지금부터 하느님께 드릴 소원 하나씩을 만들어 보세요. 혹시 지금 기도 지향을 가지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그러자 ‘부모님이 건강하게 오래 사셨으면 좋겠다’, ‘우리 수도회가 하느님 뜻 안에서 잘 살아가기를 바란다’, ‘마지막 순간까지 지금의 마음을 잃지 않았으면 한다’, ‘할아버지 수사님들이 영육 간에 건강했으면 한다’ 등의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 분 수사님은 그저 가만히 눈만 감고 있기에, 옆에 있는 수사님이 툭 치면서 할 말이 없느냐 물었더니, 그 수사님을 눈을 뜨면서, “신부님, 정말 간절하면 하느님이 그 소원 들어주실까요?”

그러자 신부님은 큰 소리로 웃으시며, “하느님 안에서 간절하게 기도하면 안 되는 일이 있겠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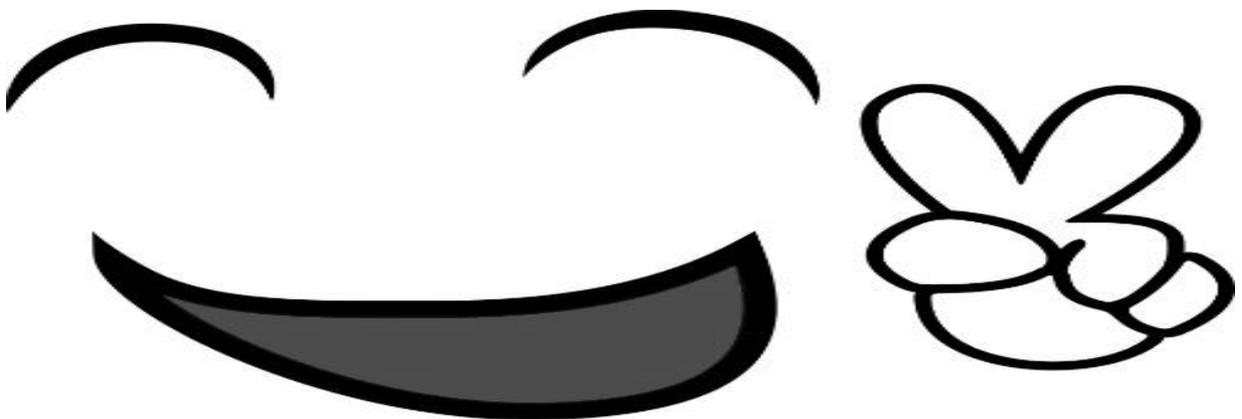
이 말을 듣자 수사님은, “종신 서원 때랑 부제서품 받을 때 성인호칭기도를 하잖아요. 사실 그때에도 저는 나름대로 간절히 기도는 했는데… 음, 하느님은 내 기도를 잘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서품 때는 과연 가능할까요?”

순간, 모두가 다 궁금해졌습니다. ‘과연 무슨 기도를 드렸기에!’ 그러자 피정 지도 신부님부터 긴장한 나머지, “혹시 무슨 기도를 하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무척 겸연쩍어하던 그 수사님은 벗겨짐이 진행 중인 넓어진 이마를 보여주면서, “머리카락 다시 나게 해 달라고 기도했거든.”

아, 겉으로는 표시가 잘 안 났지만, 탈모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사님은 처음엔 머리카락이 안 뽑히게 해 달라고 기도했고, 그 후에는 뽑힌 머리카락이 다시 나게 해 달라고 기도를 했고, 그러다 요즘은 과학의 힘을 빌려 머리카락이 다시 나는 신약이 개발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수사님의 바람에 간절함이 묻어 있어, 웃고 싶은데 아무도 웃을 수 없었습니다. 표정에 비장함까지 묻어 있어서 감히.

그래요, 성직자나 수도자라고 해서 간절한 기도의 내용이 ‘세상을 위한 위대한 기도’나 혹은 ‘완전한 이타의 마음이 담긴 기도’가 아닐 수 있습니다. 단지 머리카락이 나고, 무좀이 낫고, 코골이가 멈추고, 등쪽에 손이 안 닿는 부분의 ‘간질간질한 곳’의 가려움증이 가라앉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간절한 기도, 아니 소박한 기도로 인해 낫기 시작하고, 거기서 느껴지는 ‘작고 소중한 것에 대한 깊은 감사의 체험’은 성직자, 수도자들이 세상을 향해 보다 깊이 투신할 수 있는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수사님의 빠져나가는 머리카락 자리에서 진심, 새순이 나길 함께 빌어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주변의 성직자와 수도자를 위해 기도해 주는 마음 잊지 마시구요.



❖ 6월 영명축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 | | | | | | |
|-----|-----------------------------|--|-----|---------------------|---------------------------------------|-----------|
| 1일 | 유스티나 (St. Justina) | 홍영숙 | 29일 | 베드로 (St. Petrus) | 김부영 최영운 최신형 | 남원석 석석 |
| 13일 | 안토니오 (St. Antonio) | 김현규 | | 페트라 (St. Petra) | 김상미 | |
| 22일 | 토마스 모어 (St. Thomas More) | 김서울 | | 파울라 (St. Paula) | 최영자 | |
| 24일 | 세례자 요한 (St. Johannes) | 김성철 김민규 남궁경 박진태 최현봉 박찬진 | | 바오로 (St. Paulus) | 송문규 이민재 배진태 박종준 최승병 최진 | |

❖ 6월 지방공동체 영명축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 | | | | | |
|-----|-------------------------|------------------|-----|---------------------|----------------------------|
| 13일 | 안토니오 | 문철주(H) 박일열(H) | 24일 | 알레나 (St. Alena) | 배알레나(B) |
| 19일 | 율리안나 | 송윤아(H) | | | |
| 24일 | 카타리나 (St. Catherine) | 고희경(B) | 29일 | 바오로 (St. Paulus) | 최한우(O) 임완규(O) 이범이(H) |

❖ 6월 성가번호

| 6월 | 입당 | 봉헌 | 성세 | 파견 |
|-----|------|-----|-----|-----|
| 4일 | 142 | 210 | 158 | 39 |
| 11일 | 81 | 216 | 151 | 83 |
| 18일 | 164 | 219 | 165 | 200 |
| 25일 | 가쪽미사 | | | |

❖ 6월 미사 전례 봉사자 ❖

| 6월 | 독서 | 제병봉헌 | 복사 | 커피봉사 |
|-----|------------------------------|----------------------|----------------------------|------|
| 4일 | 브레멘 김영자(대레사) 하노버 김영희(안젤라) | 권지연(안드레아) 방영자(젼마) | 남궁춘배(바르톨로메오) 김진호(프란치스코) | 전신자 |
| 11일 | 강신행(토마스) 이순자(마리아) | 김동수(시몬) 강신자(벨라델타) | 주일학교 | 2구역 |
| 18일 | 최성자(벨라델타) 김매자(베로니카) | 김부남(베드로) 박우현(루치아) | 주일학교 | 3구역 |
| 25일 | 가족미사 | | | 4구역 |

❖ 우리들의 정성 ❖

| 주일 | 4월 20일 | 5월 7일 | 5월 10일 | 5월 14일 | 5월 21일 |
|------|--------|--------|--------|--------|--------|
| 계(€) | 171.10 | 165.44 | 215.00 | 197.17 | 159.95 |

❖ 자진헌납금 ❖

2017년 4월 24일 — 2017년 5월 21일 자진 헌납금 납부자 명단

현금납부 :

윤예진, 박성아, 김기연, 김민수, 한규호, 이종하, 이정은,
 서세원, 민경화, 최순남, 최승진, 손수희, 김계희, 최장용,
 강신행, 강순행, 이기열, 이경규, 이현묵, 이종지, 이공종,
 이석우, 이정수, 이수웅, 김용일, 김건, 김경미, 김형웅,
 현영애, 한선지, 우동천, 육종인, 진윤희, 배성우, 문경희,
 신옥희,

구좌입금 :

김부남, 최화영, 백정선, 이철우, 홍경영, 허두욱, 서유미,
이명원, 이성원, 이상봉, 이정훈, 박준병, 김치수, 김수혜,
김진호, 김대현, 강일남, 최현봉, 남궁춘배, 허길조,
영희 Eggerstedt, 오옥수, 권지연,

※ 납부자 중 월보에 기재가 되지 않으신 분들은 꼭 총무님에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자진헌납금은 한인 천주교회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 Hamburg 공동체 소식

1. 6월은 예수 성심 성월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묵상할 수 있는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 6월 3일(토)~4일(주일) 성령강림대축일에는 처음으로 1박 2일의 일정으로 "본당의 날 행사"를 Jugendherberg Ülzen에서 가집니다.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는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기원하고, 참여할 수 없는 분들은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이 날, Renovabis(가톨릭 동유럽 원조 기구)를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미리 준비해 주십시오.
3. 예비신자 교리는 첫째 주일 미사 전에 있지만 본당의 날 행사 관계로 이번 달에는 둘째 주일 미사 전 13시에 있습니다.
4. 6월 12일(월)부터 6월 16일(금)까지 쾰른에서 유럽 한인 천주교회 사목자 모임이 있습니다. 주임신부님은 6월 15일 목요일 함부르크 주교좌 성당에서 있을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 미사 때문에 수요일까지만 쾰른에서 지낼 예정입니다. 화요일과 수요일의 평일미사는 남영우(스테파노) 신부님께서 봉헌하실 예정입니다.
5. 6월 15일(목)은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입니다. 19시에 주교좌 성당에서 미사가 있고, 미사 후에는 성체거동 행렬이 있습니다. 많은 신자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만남성당에서의 저녁미사는 없습니다.
6. 6월 23일(금)은 예수 성심 대축일이면서 사제 성화의 날입니다. 19시에 만남성당에서 미사를 봉헌합니다. 미사에 참여하셔서 사제들과 수도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7. 6월에도 가정방문과 축복은 계속 됩니다. 신청해 주십시오.

※함부르크 대주교님께서는 각 미션 교회가 독일 공동체와 함께 신앙생활을 할 것을 권고하셨습니다. 함부르크 교구에서 주최하는 모든 신앙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청합니다.

❖ Bremen 공동체 소식

1. 소공동체 모임 : Bremen : 매월 3째 주 수요일 14시 Tel. : 0421255162
 Visbek : 매월 3째 주 토요일 14시 Tel. : 04445 / 24
2. 5월의 브레멘 공동체 기도모임은 없었습니다. 여행 중인 교우님들, 주님의 은총 아래 행복한 휴가를 기원했습니다.
3. 6월 11일 윤주해(프란치스카) 자매님께서 칠순 생신을 맞이하십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영육 간 건강을 기원합니다.
4. 6월의 공동체 미사는 본당의 날 행사관계로 6월 넷째 주 토요일인 24일로 변경되어 봉헌됩니다.

❖ Hannover 공동체 소식

1. 매월 첫째 주 수요일 15시 안토니오 성당에서 공동체 소공동체를 합니다.
2. 매월 첫째 주 토요일 15시 안토니오 성당에서 청년 소공동체를 합니다.
 담당자 : 김명수 마태오 0151 2910-3699

❖ Osnabrück 공동체 소식

1. 5월 공동체 미사는 5월 13일(토), 부활 제5주일 미사로 봉헌하였습니다.
2. 5월 27일(토)에 성모성월 공동체 행사로 성모님 발현성지 Heede를 당일 일정으로 순례합니다.
3. 5월 19일 김선민(카타리나) 자매님의 Gymnasium 졸업 피아노 연주회가 있었습니다. Abitur 합격을 축하하며, 훌륭한 연주기량에 큰 박수를 보냅니다.

❖ 활동단체 모임 및 연락처 ❖

| | | | | | | |
|----------------|------------------------|---------------------|-------------|----------------|----------------------------------|----------------------------------|
| 사 목 협 의 회 | 매월 첫째 주일미사 후 | 만남성당 | 회 장 | 최 영 숙 데 레 사 | 040/ 3742 0006 0157 5012 6332 | |
| 구 역 장 모 임 | 공지 시 넷째 주일미사 후 | 예수성심성당 | 회 장 | 각 구역장 | 각 구역장 참조 | |
| 주 일 학 교 | 매주 주일미사 후 | 예수성심성당 | 교 감 | 최 영 자 파 울 라 | 040/ 3865 3332 | |
| | | | | | | |
| 연 령 회 | 매월 넷째 목요일 17시 30분 | 만남성당 | 회 장 | 김 진 호 프란치스코 | 040/ 3742 0006 0152 0448 7382 | |
| 예 비 자 교 리 | 매월 첫째 주일미사 전 13시 | 예수성심성당 | 복음화 | 공 석 | 대리 - 본당회장 | |
| 레 지 오 마 리 애 | 믿음의 샘 Cu. | 매월 첫째 목요일 평일미사 후 | 만남성당 | 단 장 | 이 순 자 마 리 아 | 040/ 4109 1742 |
| | 자비의 모후 Pr. | 매주 화요일 17시 30분 | 만남성당 | 단 장 | 이 순 자 마 리 아 | 040/ 4109 1742 |
| | 평화의 모후 Pr. | 매주 수요일 평일미사 후 | 만남성당 | 단 장 | 현 영 애 헬 레 나 | 040/ 5480 1592 0176 6262 7429 |
| | 사랑의 모후 Pr. (청년반) | 매주 화요일 평일미사 후 | 만남성당 | 단 장 | 박 성 아 베로니카 | 0176 8011 2329 |
| 구 역 | 1구역 | 구역장 | 김 매 자 베로니카 | 8509768 | | |
| | | 총 무 | 김 정 숙 마르타 | 8322587 | | |
| | 2구역 | 구역장 | 허 채 열 크리스티안 | 5709734 | | |
| | | 총 무 | 이 영 희 체칠리아 | 5277854 | | |
| | 3구역 | 구역장 | 이 현 목 요 셉 | 6011594 | | |
| | | 총 무 | 이 경 규 안스카 | 6045311 | | |
| | 4구역 | 구역장 | 문 경 영 아가다 | 20971988 | | |
| | | 총 무 | 정 경 숙 안 나 | 6729549 | | |
| 청년부 | 매월 둘째 주일미사 후 | 회장 | 서 유 미 레지나 | 0171 867 2858 | | |
| | | 부회장 | 이 정 훈 요나스 | 0176 4345 2337 | | |
| 요셉, 마리아 | 매월 둘째 수요일 평일미사 후 | | 회 장 | 심 은 희 안 나 | 0157 8045 2206 | |

6월 중 행사 예정표(예수 성심 성월)

| 일 | 요일 | 전례일 | 단체 행사 | 비고 |
|----|----|--|---------------------------------|------------------|
| 1 | 목 | 성 유스티노 순교자 | 꾸리아 | |
| 2 | 금 | | | |
| 3 | 토 | 성 가롤로 르왕가와 동료 순교자들 | 본당의 날 행사 Jugendherberg Ülzen | |
| 4 | 일 | 성령 강림 대축일 | | |
| 5 | 월 | 성 보니파시오 주교 순교자 | | |
| 6 | 화 | 연중 제9주간 화요일, 현충일 | | |
| 7 | 수 | | | |
| 8 | 목 | | | |
| 9 | 금 | | 2구역 소공동체 | |
| 10 | 토 | | | 오스나브뤽 공동체 |
| 11 | 일 | 삼위 일체 대축일 (그라츠 자매교구의 날) | 청년 소공동체 | 사목협의회 |
| 12 | 월 | | | 유럽 사목자 회의 : 쾰른 |
| 13 | 화 |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 사제 학자 | | |
| 14 | 수 | | 요셉, 마리아 소공동체 | |
| 15 | 목 |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 | 19시 미사와 Prozession | 함부르크 교구 |
| 16 | 금 | | | |
| 17 | 토 | | | 하노버 공동체 |
| 18 | 일 |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 | | 한국 교회 |
| 19 | 월 | | | |
| 20 | 화 | | | |
| 21 | 수 | 성 알로이시오 곤자가 수도자, 하지 | | |
| 22 | 목 | | 연령회 | |
| 23 | 금 | 예수 성심 대축일 (사제성화의 날) | | 19시 미사 (만남성당) |
| 24 | 토 | 성 요한 세례자 탄생 대축일 | | 브레멘 공동체 |
| 25 | 일 |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연중 제12주일), 6.25 전쟁일 | | 가족미사 |
| 26 | 월 | | | |
| 27 | 화 | | | |
| 28 | 수 | 성 이레네오 주교 순교자 | | |
| 29 | 목 |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사도 대축일 | | |
| 30 | 금 | | | |

❖ 미 사 안 내 ❖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본당 주일 미사 (고해성사는 미사 30분전, 미사 10분전 교리)

시간 : 매주 일요일 15:00

장소 : 예수 성심 성당(Herz-Jesu-Kirche)

Bei der Hammer Kirche 12, 20535 Hamburg

평일 미사

시간 : 매주 화, 목요일 19시, 수요일 오전 10시

첫 째, 둘째 금요일 17시 30분(복음 나누기회, 2구역 소공동체)

장소 : 만남성당, Am Mariendom 5, 20099 Hamburg

지방 공동체

Bremen

시 간 : 매월 첫째 주 토요일 17시

미사장소 : St. Hedwig

Kurt-Schumacher Allee 62, 28327 Bremen

연 락 처: 김영숙(아나스타시아), Tel : 04202 71888

H.P : 0172 9593611

Osnabrück

시 간 : 매월 둘째 주 토요일 17시

미사장소 : Dom-Gemeindehaus(Pernikel Mühle)

Mühlenstrasse 6, 49074 Osnabrück

회 장 : 노금순(테레사), Tel : 0541 5062637

Hannover

시 간 : 매월 셋째 주 토요일 16시

미사장소 : Kirchröder Strasse 12a, 30625 Hannover

연 락 처 : 김명수(마태오), H.P : 0151 29103699